

■ 도의회 행자위, 공무원-전문가 대상 ‘제2공항 건설 추진’ 물었더니…

공무원 52% “찬성”… 전문가 53% “반대”

시설공단 설립… 공무원 60%·전문가 74% “동의”

제주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 도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9일 발표한 ‘2019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로, 설문은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 995명, 공무원 305명, 전문가 100명 등 총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제2공항 관련 ‘반반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공무원 51.9%, 전문가 5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통’이 각각 32.7%, 16%, 부정적 의견은 각각 15.4%, 27%로 조사됐다.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공무원은 찬성 52.2%, 반대 32.5%였으며, 전문가는 찬성 44%, 반대 53%였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제2공항 건설 찬성 이유로 ‘현 제주공항 포화, 추가 항공인프라 필요’, 반대 이유로 ‘기존 공항 활용 충분, 용역 검토 부실’을 모두 1순위로 꼽았다.

연내 설립 불발로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설립 필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연착륙을 위한 선결과제 등이 제기돼 향후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방기업인 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공무원 59.7%, 전문가 74%가 ‘동의’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시설공단 설립 이전(관련 조례 의회 통과 이전)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지사와 공무원 및 공무원 노조가 안정적 이직, 처우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응답(공무원 65.8%, 전문가 73%)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시설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으로 ‘전환 대상 공공시설 근로자의 안정적 이직(27.4%)’을 꼽았는데,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으로 이직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63.8%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9.5%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6.6%였다.

이와함께 공식사회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도정’ 평가에서는 공무원은 보통(50.2%), 전문가는 부정적 평가(47%)가 높았다. 오은지기자

제주, 파란하늘… ‘완연한 가을’

기상청 “11일까지 맑고 일교차 7℃ 이상 전망”

가을에 접어든 제주도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제주도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겠고, 11일도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겠다”고 9일 예보했다.

10일 아침기온은 14~15℃, 낮 기온은 23~24℃로 일교차가 다소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11일 아침기온은 16~17℃, 낮 기온은 23~25℃다.

아울러 11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초속 10~14m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해상에서도 물결이 2~4m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전망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10일 밤을 기해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송은범기자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장소 7곳

경찰 “10~12월 사고 집중”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도내 7개 도로가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됐다.

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3건 이상(사망 포함 시 2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역은 총 7개소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시 이도1동 중앙로(5건) ▷제주시 한림수협 본점 부근(4건) ▷서귀포시 중문동 우체국 부근(6건)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5건·사망 2명) ▷서귀포시 중앙동우체국 부근(4건) ▷서귀포시 서귀포고등학교 정문 부근

(3건) ▷서귀포시 동홍동 태평로(2건·사망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갑갑 수확철(10~12월) 새벽에 나가 저녁 무렵에 귀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체 사망사고 33.5%가 10~12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업체를 설치하는 ‘밝은 제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고,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구간단속 장비도 확대·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82명 가운데 보행자는 3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고령자였다. 송은범기자

제주대병원 비급여진료비 가장 저렴

국립대병원 등 45곳 조사

제주대학교병원이 전국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비급여진료비가 가장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45곳 가운데 제주대병원은 1인실 병실료, 양수염색제 검사, 태아정밀초음파 비용 등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전체 평균은 33만원인데 반해 제주대병원은 15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인 척추, 관절 MRI 진단료는 ‘경추, 요추, 견관절’ 촬영의 경우 평균 67만원대이

지만 제주대병원(55만원)은 동아대병원(54만원) 다음으로 저렴했다.

임신부들이 주로 받는 ‘양수염색제 검사’도 제주대병원은 23만원으로 평균 보다 60만원 가량 저렴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성산 거주 70대 주민 해안에서 숨진채 발견

서귀포시 성산을 해안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4분쯤 성산을 오조리포구 인근 해상에서 앞드린채 해상에 떠 있는 변사체를 관광객이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시신을 인양한 뒤 소지품과 신분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에 거주하는 김모(72)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김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제58회 탐라문화제 길트기 ‘자연이 탐나·사람이 탐나·탐나는 제주문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58회 탐라문화제 개막식에 앞서 9일 제주시 산지천 탐라광장에서 제주시민속보존회와 결공·민속예술 경연 단체 등이 참가한 ‘탐라문화제 길트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체계화되나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 관련 조례 대표 발의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위한 교육감 책무 명시

제주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인 폐교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내 폐교 건물 대다수가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되는 등 관리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폐교

재산의 관리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가 명시됐다.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3년마다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뒤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운영과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김희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재산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되고 있어도 이행강제금조차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도 폐교가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드러났다”며 “교육청의 재산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즐기자 로타리!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6회 로타리안 한마음 축제

일시 2019년 10월 12일(토) 09:00

장소 표선생활체육관/운동장

●주최 | 국제로타리 3662지구

●주관 | 국제로타리 3662지구 문화·체육위원회

Rotary
3662지구



총재 창아 이 기 창

●국제로타리 3662지구에서는 제주도내 어르신들을 위한 백내장 수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추천하실 분은 지구사무국으로 접수바랍니다.